

“中企 경쟁률 공정하게 작동... 좁은등지 늘려 기회 확대”

이재명, 中企 대표들과 간담회
대·중소기업간 힘의균형 회복 등
‘전환적 공정 성장’ 4대비전 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 후 김기문 회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시스

688만개 중소기업, 1744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처음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와의 자리 외에도 다른 대선 주자들과 일정이 조율되는대로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 앞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이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첫째는 비좁은 등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좁은 등지를 더 크게 늘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해 기

회를 늘리자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 문제도 공정한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위한 법·제도를 개혁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인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법과 제도의 공백은 메꾸고 허술한 제도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면서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론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테크펀드,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후보와의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봉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스타트업 대표, 취업 준비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표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영역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담합적용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의 현안을 현장에서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안’이 담긴 총 192페이지의 정책자료집을 이날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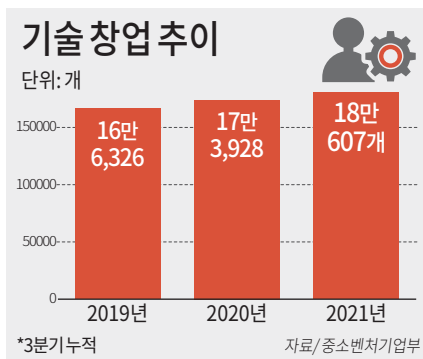
여기에 노동규제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탄소중립·ESG 지원, 협동조합 육성, 전통기업 육성, 창업·벤처·여성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위해선 양극화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3분기 누적 기술창업 18만개 ‘역대 최고’

중기부, 창업기업 동향
전체 창업 중 부동산 제외엔 6% 증가
도·소매업 13%, 정보통신업 26%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기술창업이 올해 들어 크게 늘며 9월 말까지 18만개를 넘어섰다.

기술창업이 3·4분기까지 18만개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1~9월 창업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말까지 106만8998개가 창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만2727개보다 7.3%(8만3729개)가 감소한 수치지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6.1%(4만7476개)가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 주

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늘어 전체 창업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이 전년에 비해 12.3%나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지난해 창업이 줄어든

개인서비스업도 올해 들어 5.2% 늘었다.

특히 온라인·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26.1%)과 전문과학기술업(20.8%) 창업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기술창업은 18만 607개로 집계됐다. 전문과학기술업에는 포털배너, SNS 활용 광고 등 온라인 광고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술창업 가운데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4.6% 감소했다. 1~9월 기준 기술창업은 2019년엔 16만6326개, 2020년엔 17만3928개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4% 감소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불티

전자파·누수·세균 근본적 해결



귀뚜라미가 카본매트를 통해 온열매트시장의 세대교체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회사는 1세대 전기장판, 2세대 온수매트에 이어 지난 9월에 3세대 ‘카본매트 온돌’(사진)을 출시했다.

카본열선을 적용하고 편의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출시 이후 10월 한달간 빠르게 판매되며 보일러를 포함한 귀뚜라미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카본매트 온돌은 기존 전기매트의 전자파 문제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온수매트의 걱정거리였던 누수, 세균, 물 보충 및 제거 등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DC 25.5V 저전압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사용해도 전기료는 12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온수매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밀착지원’

중소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

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등에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진공이 6월 실시한 ‘중소기업 ESG 대응 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ESG 경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의 한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진공은 올해 ESG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비대면 ESG 자카진단 시스템 개발 ▲교육·컨설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국벤처투자, ‘VC트렌드리포트’ 발간

인공지능(AI), 신약, 메타버스 등이 당분간 벤처캐피탈(VC)의 주 투자처가 될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오픈서베이를 통해 처음으로 VC의 벤처투자 시장인식과 전망을 조사해 분석한 ‘VC트렌드리포트’를 발간했다.

24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VC트렌드리포트’는 벤처투자시장 인식 및 전망, 투자업종트렌드 및 전망, 투자방식 트렌드, 기업분석 트렌드 등으로 구

성됐다. 리포트에는 총 401명의 VC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 벤처투자시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41%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36.4%는 ‘올해와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이 평가한 이유는 풍부한 자금 유동성, 회수시장 활성화로 인한 빠른 투자회수의 기회, 스타트업 기업들의 질적 성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 경찰, ‘주식 부당취득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서면조사 /사진 뉴스시스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재판 다음달로 연기
▲ 당국 “코로나19 감염 첫 태아 사망 발생...산모 확진 후 사산”



▲ 버닝썬 대표, 미성년자 경호원 고용 혐의도 유죄...집유 선고
▲ 경찰청·삼성전자 손잡았다...보이스 피싱 방지기술 개발한다 /사진 뉴스시스